

# 애호가 위한 '영화책' 다양하게 선보인다

## 비디오가이드북서 감독론까지... 최근 2,3년 사이 총위 두터워져

영화를 즐기는 애호가들이 급증하면서 영화에 관한 책의 출간이 붓물을 이루고 있다. 독서계획을 세우듯 영화를 찾아가며 보는 일이 영화광들 사이에 보편화되면서 책의 출간도 이같은 흐름에 맞추어 다양하게 선보이는 것. 이같이 '보는 영화' '읽는 영화' 인구의 급증은 기왕의 전문이론서보다 정보용 가이드북에서부터, 개론서, 감독론, 특정 장르별로 읽을만한 서적들을 양산시켰다. 그러나 아무래도 최근의 출판경향 가운데 두드러지는 현상은 일반 영화매니아를 위한 깊이가 있으면서도 그러나 읽기엔 그다지 버겁지 않는 '대중적인' 영화책의 대거 출현일 것이다.

### 세계적인 명감독 조명한 단행본 인기몰이

주변에서 추천하는 유명하다는 영화들을 쟁겨본 이들이 명감독들의 흐름을 꿰고 싶은 욕구에서 먼저 찾은 것이 입문서나 개론서. '능동적으로 보고 해석하기' '올바르고 창조적으로 감상하기' 등의 기치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가이드의 역할을 자임하는 「영화보기와 영화읽기」(제3문화사)나 영화의 원년인 1985년 이전의 영화의 前史로부터 1980년대초까지의 영화의 역사를 나라별·연대기적으로 서술한 「세계영화사」(이론과실천)는 이 방면에서 널리 읽힌다. 둘다 조셉 보그스나 책 C. 엘리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사가들의 저서를 이용관(경성대 영연과 조교수) 변재란(영화평론가) 등 젊은 학자들이 번역한 것인데, 이들이 나오기 전까지 이 분야를 석권한 L. 차네티의 「영화의 이해」(현암사)는 美대학 영화과의 교재로 비교적 전문적인 편인데도 지금까지 국내 영화광들의 지적욕구를 독특히 채워주는 입문서로 꼽힌다. 국내저술로는 한국 영화학개론의 대가인 이기환(한양대)이 펴낸 「영화란 무엇인가」(지식산업사)가 86년 나온 이래 현재까지 6쇄를 찍으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김정옥(중앙대) 강태웅(서울예전) 안병섭(단국대) 교수 등이 번역서 일색의 영화개론서 사이에서 「영화를 어떻게 보고 감상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답해준다.

증가율면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독자층의 반응도 높은 분야가 유명감독들을 집중 조명한 단행본들. 「빠리에서의 마지막 탕고를」 '마지막황제'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감독 베르나도 베르톨루치의 영화세계를 다룬 「베르톨루치, 중요한 장면들」(예건사)를 비롯해 현대영화의 시작을 연 프랑스의

가장 「장뤽 고다르」, 「8 1/2」 「길」 등 독특한 영상으로 유명한 켈리니의 에세이모음 「나는 영화다」(다보문화) 장 이모우와 더불어 중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신예감독 쉐 카이저의 젊은날을 다룬 「어느 영화감독의 청춘」(푸른산) 등 상당수 출간돼 있다. 에세이, 소설, 감독론 등 씌어진 형식도 다양한데, 한 감독에 대한 단행본이 많기로는 에이젠슈타인을 능가할 감독이 아직 없어보인다. 「파업」 「전함 포츨킨」 등 혁명적 색채가 짙은 작가로만 알려져 있는 에이젠슈타인의 이면, 인간주체로서의 그의 생애와 사상에 초점을 맞춘 「이미지의 모험」(열린책들)과, 영화제작 과정 및 작가로서의 고뇌를 담은 「감독노트」(예하)가 번역돼 있다. 이와함께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장센(장면연출)론」의 창시자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봉인된 시간」(분도)도 출간, 개성이 다른 두 소련거장의 영화관을 비교 감상할 수 있다.

소극장 운영을 하다 영화서적 전문출판을 표방하고 최근 출판사등록을 한 1895는 세계의 명감독들을 한명씩 집중조명 「시네아트선집」으로 묶어 펴낼 계획인데, 그 첫째권으로 흥행의 마술사로 불리는 「스티븐 스피버그」의 영화관과 작품세계를 조명한 책을 펴냈다. 이 책은 현재 뉴욕대 영화과에 재학중인 김용태 씨가 직접 썼는데, 흔히 흥행꾼으로만 알고 있는 스피버그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했다. 뒤 이어 스탠리 큐브릭, 구로자와 아기라, 프란시스 F. 코폴라에 대해서도 출간된다. 지난해말과 최근 나온 「가치의 전복자들 1,2」(청담사)와 「뉴시네마감독론」(한국문연) 등은 한 사람의 작가론이 아니라 세계의 영화감독들을 일정한 주제하에 묶었는데, 남유럽 동유럽 남미 소련 등의 주요감독과 주요작품을 함께 조명, 구미 영화에 편중되어 있던 일반의 취향을 균형있게 회복시킨다. 국내 감독으로는 「오발탄」 「막차로 온 손님」 등 어두운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을 영상에 담았던 유현목 감독에 관한 작가론 및 단평을 담은 「단련 현실, 열린 영화」가 유일하다.

### 비디오가이드북도 여럿 등장

영화개론서나 특정작가의 감독론을 읽기 위해서는 해당 영화들에 대한 폭넓은 감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전단계로서 비디오 영화 시청자들이 좋은 영화를 선별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출시회사와 출시일, 상영시간 등을 자



「쏟아진다」는 표현이 걸맞은 최근의 영화서적들.

세히 알려주는 비디오가이드북도 여러종 등장, 유용한 정보원 구실을 한다. 서울YMCA '건전한비디오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발간한 「시민이 뽑은 좋은 비디오 100」을 비롯해 제3문화사에서 최근 「비디오로 만나는 좋은 영화」를 400여쪽의 방대한 분량의 단행본으로 펴냈다. 이들 책자는 「현대사회와 가족」 「어린이를 위한 비디오」 「청소년을 위한 상상력 키우기」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비디오」 「애정영화」 「새로운 영화」 「영화의 영화」 「고전영화」 등 주제에 따라 분류 그 내용과 제작·출연진, 감상법 등을 소개해 두었다. 또한 세광음악출판사에서 나온 「세계영화사」 역시 비디오 애호가들을 위한 명화모음집으로 이들은 흥행에는 실패했으나 작품성으로 호평받은 예술영화도 소개했다. 한편, 영화조감독 구회영씨가 영화잡지에 연재한 것을 묶어낸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한울)도 초보자들을 위한 적절한 가이드가 될 만하다.

특정 국가의 영화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책도 몇몇 눈에 띈다. 「미국영화는 재미있고 신기한 것으로, 소련영화는 어릿광대가 아니라 명백히 「교사」로서 태어났다」는 영화평론가의 지적처럼 예술의 지향은 그 사회의 토대와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 공동체에서 나온 「소련영화사1」(레이 제이다)는 1960년에 출간된 이래 두차례에 걸쳐 증보된 대표적인 소련영화사로 아직도 금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소련의 영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해준다. 미국영화의 또다른 이름인 할리우드영화. 최근 나온 「할리우드」(이용관, 김지석)는 자본주의사회 상품오락영화의 대명사로 통하는 할리우드영화를 산업과 이데올로기라는 양측

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영화에 대한 연구는 우리영화학계의 거목 중대 이증거교수의 정년퇴임기념논문인 「한국영화의 이해」(예니)에서 우리영화의 미학, 사적고찰 등에 대한 이교수의 글과 함께 동료교수와 후배제자들의 글을 실어 한국영화사를 집대성 했다. 반면, 영화평론가 이효인씨가 올초 펴낸 「한국영화사상의1」은 민족영화의 역사적 복원을 꾀한 진보적인 영화학도의 패기넘치는 한국영화사다. 이와함께 북한영화의 창작실태나 주제 영화이론 등 북한영화의 현실과 전반적인 흐름을 살핀 「북한영화의 이해」(친구)가 있다. 이밖에도 부단히 시도되고 있는 전위영화의 개념과 이론적 토대 및 실험영화의 역사를 살핀 「전위영화의 이해」(예니)나 기록영화의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다락방), 만화영화의 역사와 주요작품, 국내제작현황을 살핀 「애니메이션영화사」 등 특정장르에 관한 역사나 저술도 관심있는 일반독자들을 지적욕구를 자극할 만하다.

최근 영화서적 출판의 특징적 현상은 이전의 책들이 거개가 이론 중심의 딱딱한 번역서였는데 비해 이제는 국내필자들에게 의해 씌어진 책들이 적지 않다는 점. 30대 초중반의 소장영화학자들이 번역은 물론 세계유명 감독들의 감독론까지 써내고 있는 것. 그러나 앞서 목록에서도 보듯 비슷한 종류와 수준의 책에 물려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고른 출간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영화학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같이 긍정과 비판 지적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영화서적의 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정해욱 기자